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내 조합원들 '변화보다 안정'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전북지역 당선자 명단 6·7면

####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등 현역 당선인 과반 이상 차지 전북지역은 110명 선출... 운봉농협, 향후 재선거 치러져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북지역 조합원들의 선택은 신인 조합장의 새로운 '변화'보다 현 조합장의 '안정'을 선택했다. 이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실다지기 노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협 93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10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조합장 당선인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인수는 20만2,552명으로 1491개 투표소를 통해 16만3,599명이 투표해 8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1회 선거 때 80.4%보다는 높고 2회와는 동일하다. 전국 투표율은 79.8%보다 높은 수치다.

농협이 선거인수 16만3,027명 가운데 13만7,453명이 투표해 8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수협은 선거인수 1만7,699명 중 8,305명이 투표해 77.1%, 산림조합은 선거인수 2만4,759명 중 1만7,841명이 투표해 72.1%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도내에서는 임인규 전주농협 당선인이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4,808명 가운데 3,338표를 얻어 전북에서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고 득표율 69.5%로 3선에 성공했다.

부안농협 김원철 당선인은 투표에 참가한 4,449명의 조합원 중 2,855표를 얻어 7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초보형 경험 끝에 현 조합장이 신인 조합장에 패배한 곳이 눈에 띄었다.

먼저 운봉농협이 개표 결과 윤여실 현 조합장과 정성권 후보가 각각 317표씩 동수 표를 얻었지만, 득표수가

같이 연전자 우선 조합에 따라 연전자 인 정 후보자가 당선됐다.

진안농협에서는 허남규 현 조합장이 김문중 후보보다 43표 뒤져 패배했다. 오수관농협에서는 정철석 현 조합장이 김학운 후보보다 82표 앞서 당선됐으며, 서순창농협에서는 박상철 현 조합장이 설득환 후보보다 14표 적게 득표해 떨어졌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인해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신인들이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 조합장은 2명이 당선됐다. 여성 조합장으로는 최복순 금산농협 전 전무가 당선됐고 고창인 순정축협 현 조합장이 현직을 유지했다.

이밖에, 완주 고산농협에서는 이례적으로 4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을 꺾고 손병철 전 상임감사가 당선됐다.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인 확정된 조합장은 농·축협 14명, 수협 2명, 산림조합 5명, 모두 21명이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도 잇따라 발생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해 6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명(76.1%)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6명(9%), 사선 선거운동 5명(7.5%) 순이다.

이날 치러진 조합장선거 당선인 110명은 향후 4년간 전북지역 농림축산업계를 이끌게 된다.

한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한 운봉농협은 향후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영태 기자

## 도,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 선정

#### 지자체-대학 혁신사업까지 모두 선정되는 쾌거 이뤄

#### 도, 교육청·대학과 함께 지역발전 협치 추진 '결실'

#### 5개년 계획 상반기 중 수립 7월경 교육부와 협약 체결

전북도는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로써 지난 6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이어, 이날 라이즈 시범지역까지 선정됨으로써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지자체와 관련된 가장 큰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atization Education)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라이즈 시범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자 9인으로 구성된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RISE는 전북의 특화도가 높고 혁신 기반 조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해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양성과 취업창업, 지역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5대 대기업유치와 함께 청년이 떠나고 출생률 마저 최저인 전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역설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전북도는 그동안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대학협력팀'을 만들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되던 대학 업무를 일원화했다.

특히 지자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라이즈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대학이 '대학협력관'을 도청에 파해 합



김관영 도지사는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 공모선정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해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양성과 취업창업, 지역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5대 대기업유치와 함께 청년이 떠나고 출생률 마저 최저인 전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역설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전북도는 그동안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대학협력팀'을 만들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되던 대학 업무를 일원화했다.

특히 지자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라이즈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대학이 '대학협력관'을 도청에 파해 합

계 근무하는 등 이 같은 협력 속에서 최근 RE와 라이즈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대학 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전라북도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

영되는 2025년 이내에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여 7월경에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분야 글로벌 대학 육성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학지원사업을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갖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심층 활용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 순식 소방사 애도 조기, 오늘 국립묘지에 계양

### 김제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

국가보훈처는 지난 7일 김제지역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하고 (故) 성공일 소방사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조기를 계양한다고 8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

자 작고 시 조기를 계양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복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기를 계양을 결정했다.

조기계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짝아 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계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작고 시 국가보훈처 차원

에서 조기 계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지난해 7월30일) 거행일과 고 오성근 애국지사의 안장식(1월30일) 거행일에 조기계양을 시행한 바 있다.

보훈처의 조기계양은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9일 진행된다. /뉴스

시민 중심, 으뜸 정읍

# 2023 정읍 벚꽃축제

## 정읍, 핑크빛 愛 물들다

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 - 4월 4일 (화)

개막식 : 2023년 4월 1일 (토) 오후 7시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

정읍시

※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